

광주신보 “올해 설립 30주년…신속 보증·포용금융 확대”



8200억 보증 공급 목표…30년간 누적 7조7712억
고객지원팀 신설…3일 내 승인 ‘1·2·3운동’ 정착

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염규승·사진)이 올해 설립 30주년을 앞두고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 지원 기능을 한층 강화한다.

15일 광주신보에 따르면 1996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누적 보증공급 7조7712억 원을 기록했다. 지원 대상은 15만4100개 업체에 이른다. 의한위기, 글로벌 금융위

기,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지역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금융 안전판 역할을 해 왔다는 평가다.

위기 때마다 보증 규모는 급격히 늘었다. 광주시 소상공인(콜목상권) 특례 보증은 누적 8700억원(4만8000건). 청년 창업 특례 보증은 2000억원(8400건)이 공급됐다. 코로나19 위기 기간에는 1조

8000억원의 보증이 집중 투입돼 8만 1200개 업체가 자금 지원을 받았다. 관광 사업자 위기, 대유위니아 사태, 2025년 폭우 피해 등 지역 현안 대응 보증도 326 억원 규모로 집행됐다.

광주신보는 2026년 보증공급 목표를 8200억원으로 설정했다. 단순한 외형 확대가 아니라 조직 개편과 업무 방식 혁신을 병행해 정책 효과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고객지원팀을 신설해 상담과 현장 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재기지원을 위한 희망리턴페어지 사업 확대, 보증 이후 사후관리와 실사 지원도 체계화한다.

업무 효율성과 심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내부 시스템 개편도 본격화된다. 지난 해 말 자체 개발한 G.A.S.S.(보증품의지 원시스템)를 전면 도입해 행정 부담을 줄이고, 직원들이 현장과 심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신속 보증 체계는 현장에서 가시적인 변화를 만들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 중인 ‘1·2·3운동’은 1일 이내 상담 예약, 2일 이내 실사, 3일 이내 승인·약정을 원칙으로 한다. 광주신보는 이 시스템을 정착시켜 금융 지원의 속도와 예측 가능성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포용금융 확대도 과제로 제시됐다. 최근 출시한 여성기업 협약보증을 통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고금리 금융상품 이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저리의 소상공인 전용 마이너스 통장 보증인 ‘광주 소상공인 희망통장’도 선보일 예정이다.

염규승 이사장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금융 지원을 이어가겠다”며 “광주신보가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를 떠받치는 지역경제의 핵심 바탕목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

광주시 금융정책협력관에 이수인 금감원 국장

금리·자금운영·경제정책 자문…금융기관 협력사업 확대



광주시는 지난 14일 금융정책협력관으로 이수인 금융감독원 국장을 위촉했다.

이수인 신임 금융협력관은 2003년 금융감독원에 입사해 전자금융감독팀장, 디지털금융총괄팀장을 역임한 디지털금융 전문가이다.

이 금융협력관은 앞으로 1년간 금리·자금 운영, 금융기관 협력사업(특례보증), 경제정책 자문을 담당하며, 광주시와 금

융감독원 간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김영문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금융 전문가인 이수인 협력관은 앞으로 광주시가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금융정책을 펴는 데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금융정책으로 ‘부강한 광주’의 기틀을 닦아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광양제철소, 스크랩 수거로 연간 200억 절감

작년 5만5000t 수거…올해 캠페인으로 전사적 확대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원가 절감과 자원 재활용 확대를 위해 대대적인 ‘스크랩(Scrap)’ 수거 활동을 전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스크랩은 철강 생산·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철강 폐기물(고철)로, 이 중 유해 물질과 이물질이 적은 스크랩은 철강재 생산을 위해 다시 투입될 수 있으며, 전기로의 주요 원료로 활용된다.

광양제철소는 이달 말까지 집중적인 스크랩 수거 활동을 벌인다. 철강 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불확실한 경영 환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원가 부담을 낮

한 폐자재 스크랩. 자산 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스크랩 기운데 제강공장에서 주원료로 활용 가능한 물량이다.

광양제철소는 수거 과정에서 품질과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스크랩만을 선별하며, 조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비철금속이나 이물질 혼합 여부를 철저히 분석하는 등 엄격한 선별 절차를 거친다. 지난해 총 5만5000t의 스크랩을 회수해 218억원의 스크랩 구매 비용을 절감한 바 있다.

광양제철소 관계자는 “스크랩 수거활동은 단순한 원가 절감뿐만 아니라 생산 효율성 증대와 환경보호에도 기여한다”며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회수해 제조 원가를 낮추고 폐기물 발생을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lkjkjin@gwangnam.co.kr

“동심협력 정신으로 농심천심 운동 실천”

전남·제주 농기계은행 선도농협협의회 정기총회

농협 전남본부는 최근 본부 대강당에서 전남·제주 농기계은행 선도농협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조합장 6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퍼포먼스, 2025년 사업 결

했다.

전남본부의 농기계은행 사업은 맞춤형 직영 67개소를 포함한 총 107개 참여 농협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를 통해 밭작업 기계화, 드문모 심기, 육묘장 운영 등 다양한 영농 지원을 추진하며, 만성적인 일손 부족 문제 해소와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이승홍 기자 photo25@



농협 전남본부는 최근 본부 2층에서 전남·제주 농기계은행 선도농협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농협 전남본부 “농업소득 3000만원 달성하자”

나주 한리봉 농가서 경제사업 추진 결의대회

농협 전남본부는 15일 나주시 노안면

한리봉 농가에서 농협 나주시지부와 노안

농협 임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농협 경제사업 추진 결의대회’를 개

제사업 활성화를 결의하는 한편, 한라봉 수확을 돋는 영농지원 활동에도 참여하며 현장 중심 실천 의지를 강조했다.

전남본부는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농업인 소득 증대 △쌀값 안정과 수출 확대 △스마트농업 확산 △고품질 원예농산물 생산·판매 확대 △청년 농업인 육성 △축산업 발전 및 방역 활동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승홍 기자



광고문의 062)370-7070

구독문의 062)370-7080

뉴스는 진실이어야 합니다!

거짓 없는 보도, 헛들리지 않는 기준
광남일보를 구독해 주세요

